

(Bishopdale Reformed Church translated sermon summary: Morning service)

설교주제: 경건을 훈련하라 [디모데전서 4:6-10]

설교자: 마티아스 샷 (Matthias Schat)

6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군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네가 좇은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7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8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9 미쁘다 이 말이며 모든 사람들이 받을만하도다 10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진력하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 계신 하나님께 둬이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바울은 신체 운동과 훈련의 잘 알려진 예를 사용해 디모데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경건을 훈련하도록 격려합니다. 육상선수에게 훈련과 실전연습을 통해 자신의 기량을 다듬듯 그리스도인도 경건을 위해 일하도록 부름 받았습니니다. 경건은 믿음에서 나오는 삶의 태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소망과 실천입니다. 이것이 오늘 아침 우리가 살펴보길 원하는 복음의 부르심입니다.

1, 복음으로 양육받음: 경건의 훈련을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한 영적 자양분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바울은 오늘 설교본문 6절에서 디모데에게 경건을 계속 훈련하려면 건강에 좋은 음식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먹어야한다고 말합니다. 시편 1편에서 말하는 것처럼 경건한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배우는 시간을 가집니다. *"2 오직 여호와와 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시편 1:2) 이것이 여러분이 열심을 내는 일입니까? 하지만 바울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가 건강한 삶을 위해 좋은 것을 섭취해야하는 것처럼 해로운 것 또한 피해야만 합니다. 바울은 이것의 예로 불경스러운 신화를 언급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맞지 않는 그 어떤 것도 피하거나 거절해야만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에 주의해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엔 역시 인터넷 소셜미디어(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등등)를 포함합니다.

2, 그의 약속을 붙잡음: 우리가 경건을 계속 훈련해야 하는 동기는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바울은 이것이 경건의 영원한 가치를 아는 데서 나온다고 말합니다. 오늘 설교본문 8절에서 우리는 경건은 이생을 위해서 뿐 아니라 내생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가치가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분을 따르는 소망이 경건에 중심에 있습니다. 경건은 그리스도와 그 분의 사역의 실체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새 생명, 곧 이제 막 시작되는 새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새 생명은 영원까지 확장됩니다. 경건은 바로 이 새 생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에 대한 약속을 붙잡는 태도이며 이 약속에 감사하는 삶을 추구하는 태도입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경건한 사람으로 여깁니까? 당신의 삶은 이생의 일시적인 즐거움보다는 이생의 영원한 가치를 붙잡는 사는 삶입니까?

3, 소망 안에서 분투하다: 경건의 훈련에는 또한 인내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오늘 설교본문 10절에 나온 내용입니다. *"10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진력하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 계신 하나님께 둬이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디모데전서 4:10) 우리가 경건에 인내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보이신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모든 사람의 구원자로 말합니다. 지구가 자전하고, 비가 내리고, 농작물이 자라게 함으로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신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죄 용서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생명을 얻고 하나님 구원의 선하심의 총만함을 경험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경건을 훈련토록 도움을 줍니다. 계속해서 경건을 훈련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 곧, 그분이 우리에게 보이신 사랑을 깨닫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와 찬양을 드리는 삶을 살고 싶게 만듭니다. 이것이 당신의 갈망인가요?